두 가지 술주정

(요2:6-12)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술주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주정(酒酊)이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 술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사(酒邪)로 이야기 됩니다.
주사(酒邪), 술 주(酒)자에 간사할 사(邪)자를 써서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신 뒤에 술기운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는 좋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뜻하지요.
어떤 사람은 징징거리며 울고, 어떤 사람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전봇대만 보면 그 밑에서 옷 벗어놓고 잠을 잔다든지, 하는 이런 술만 먹고 나면 반복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사라고 얘기하고, 술주정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마는, 술주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술기운 때문에 정신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 정신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꼭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 정신없이 하는 말과 뜻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라는 말과 술주정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특히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술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酒邪)로 나타나는 술주정이 있고, 주사의 반대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술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술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주사 쪽으로 뉘앙스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술에 취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성령에 취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를 마구 하게 되는데,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나라 말들로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성령주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제정신으로 한 말들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니까 주정이 될 수 있고 그건 성령주정이었죠.
이렇게 두 가지 술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한 기적만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이러한 능력을 베풀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수하시려고 하는 복음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신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 육신으로 행하신 모든 기적이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야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두 가지 술주정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시게 될 복음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주사(酒邪)에서 주충(酒忠)으로의 변화라는 얘깁니다.
주충(酒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사(邪)자가 간사할 악할 사(邪)자니까, 그 사(邪)자와 반대 되는 바를 정(正)자나 충(忠)자를 써서 주충(酒忠)이라고 말을 만든 겁니다.
주사(酒邪)도 술에 취해 나타나는 일이고, 주충(酒忠)도 술에 취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사는 술에 취해서 악하고 못된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데, 주충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올바르고 바람직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술주정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복음사역이란 주사(酒邪)로 살던 삶이 주충(酒忠)의 삶으로 바뀐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지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정결예식을 위하여 쓰이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있던 물입니다.
유대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위생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인 의미보다 더 많은 부분, 밖에서 접촉을 통하여 묻혀갖고 들어오게 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그런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는 일상화 된 예식이 정결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 전체의 의미를 한 마디로 말하면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선민이라면 첫 번째요 마지막 조건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게 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너희들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너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게 모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도의 깊은 율법을 다 준행하고 있지만, 일반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전문화 된 영역까지 율법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식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 선민들이 일상적으로 율법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씻으면서, '아, 내가 그래도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충족감을 줄 수 있는 일반화 된 율법준수의 보편적인 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준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손을 씻는 이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얘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술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술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욕구가 생겨서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할 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만족함을 얻어야 되겠다고 마음이 어디에 꽂히거나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 마음이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취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합니다.
저 여자와 결혼해야 내 마음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만.
그때는 그 여자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에 취해 있다가 그 취한 기운에서 깨어나면 '내가 왜 저 여자하고 결혼했지?' 이혼해 버립니다.
술기운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저것으로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기운에 의해서 사람은 취해버리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면 돈 기운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사냐 아니면 주충이냐, 둘 중에 하나죠, 술주정은 술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마음 안에 들여보내면 안 될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고 방탕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서 만족하려는 것,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 비워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안으로 모셔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그 마음 안에 자식을 잘 길러서 만족해야겠다는 방탕함이나, 저 남자나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해져야겠다, 이게 바로 방탕이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탐욕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야만 행복하겠다, 이게 탐욕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갖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더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율법을 줄 테니 율법을 거울삼아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겠다'고 마음먹으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만 씻고 있는 겁니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술기운이 가득해서 주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하는가 하면 '마음속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기본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손만 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꾀죄죄하고 술 냄새 나고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샤워하고 들어오라고 욕실로 내몰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실을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입은 채로 물을 틀어놓고 옷 위에다 비누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샤워를 하기 위한 목적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샤워하라는 얘깁니다.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마음 안에는 그대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사업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내 자식 잘 키워서 보란 듯이 자랑해봐야지, 이런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차있는 상태로 율법을 글자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건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으로 채워서 다른 것에 취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돈을 주시겠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주시겠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높은 관직을 주시겠지… 바로 그게 정결예식으로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제는 손을 씻는 물이 아니라, 들이마셔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손을 씻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마실 수 있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운에 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주충의 삶을 이제는 살라!'고 하는 뜻으로 복음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취해서 나타나는 주충의 삶의 모습, 똑같은 술주정이에요, 주정이라는 말이 나쁜 뉘앙스를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굳이 구분하자면 주충입니다.
마음을 충성되고 정직하게 다 쏟고, 이게 바로 충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생각과 말과 기운이 다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내 마음에 무엇으로 만족을 누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 안으로 무엇을 모셔 들이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할 때만 사람의 정신이 있는 것이지, 내가 돈으로 채워야 되겠다고 일단 결정하면 돈에 취해서 사는 것이고, 저 남자와 결혼해야 하겠다고 정하면 남자에 취해 사는 것이고, 자식이면 자식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아버지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는 것을 현실이 되게끔 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내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모셔 들여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만이 내 정신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운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주사가 아니라 주충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주정을 하는 거예요, 술주정이지만 충성스러운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종합 판단해서 실행에 옮기십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샤프하다, 정말 예리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예리해도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겠다고.
기쁨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다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이게 다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잘 씻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건강과 돈과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미 내 마음에 좋음과 기쁨과 행복을 갖고, 그 기쁨과 행복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행복의 기운에 취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주충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돈, 건강, 성공, 출세, 자식, 이러고 있으면 이건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거예요.
마치 술을 과하게 마시면 토해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아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세상 것들이 다 토해져 나갑니다.
그리고 멀쩡한 정신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고, 하나님에게 취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 주사를 중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운에 취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에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기쁨을 향해 가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